



(23) 이기흥 변호사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여수 사도

5·16직후 JP 친척 영장청구했던 '대쪽 검사'

“부당한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낸 것이 5·18희생자를 비롯한 광주 시민입니다. 당시 가해지는 폭력을 폭력으로 이겨냈지만 이전 민주주의를 법과 질서로써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 광주 시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주의 어른’인 고 흥남순 변호사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히는 이기흥(75) 변호사는 8년 전부터 사실상 변호사 업무로 중단한 상태다.

날마다 광주 금남로 카톨릭센터 3층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은 하지만 업무는 ‘공증’만을 하고 있다. 국가나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에 매년 지역 법조계 원로로서 초청을 받지만 참석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대쪽같이 강직한 성품에 평생을 재야 법조인으로 살아 온 그지만 이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외부 기고나 말도 아끼면서 지내오고 있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것은 법정에서 설 경우 원로라는 이유로 검사나 판사가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가 많아 후배들도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60년대 권력층 민원성 구속지시에 불응 잇따른 인사조치에 결국 검사 옷 벗어

“질십이 넘어 머리가 하얀 변호사가 법정에서 서면 자식뻘 되는 검사나 판사가 불편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실에 있을 때도 짧은 후배들 보기 미안하고 해서 일선에서 아주 물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사회활동을 모두 접었다. 1980년 5·18때 재야측 수습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20년 이상을 5·18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매달렸고,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 5·18기념사업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그가 5월 관련 단체 등 외부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5·18를 거쳐 민주주의를 이뤄낸 5·18피해자와 시민들이 어느새 당시의 정신을 망각한 채, 아직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질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서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사회 정의’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한다. 이 같은 자신의 좌우명에 대해 그는 “어려운 시절 다른 것은 몰라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가정환경 덕분에” 생긴 것이라는 다소 특이하면서도 겸손한 설명을 덧붙인다. 부자가 아니었기에 군림하거나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이 없었고,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앞에 당당한 자세와 쓸데없는 욕심이 물들지 않아 자연히 정의감이라는 정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장과정과 가족의 권유로 전남대 법과대학(1회 졸업)에 진학한다. 그도 당시 누구나 그랬듯이 서울대 법과대학을 목표로 시험을 봤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도 아닌 강진농고를 마친 그가 도시출신 고교의 학



약력

- ▲1933년 해남 계곡면 법곡리 출생.
- ▲춘천·광주·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시변호사회 회장
- ▲전남대총동창회 회장
- ▲5·18민주화운동 재야측 수습위원
- ▲5·18기념재단 이사장

생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농고의 특성상 과목이 이론 보다 실기가 많아 대입 준비를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다음 해에 전남대 법대에 입학한 그는 자신 보다 한 학년이 빠른 친구들을 보며 본격적인 고시공부에 돌입해 4학년 재학시절에 사법시험(8회)에 합격한다. 그 때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자는 상과대학에서만 한 사람을 배출했을 뿐 정작 법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학의 경사로 받아들여 졌다.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검사생활을 시작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출세가 보장된 자리, 가족과 주변의 만류를 가볍게 뿌리치고 검사직을 버린 것이다.

당시 군사정권의 눈치만을 살피던 검찰 조직의 생리를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탓에 매번 차장이나 검사장과



1980년 5·18관련자로 구속됐다가 그해 12월29일 석방된 이기흥 변호사가 광주교도소 앞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

대립했고, 이 때문에 18개월 사이에 첫 부임지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광주지검으로 또다시 제주지검으로 세 차례나 인사조치됐다.

1962년 5·16 쿠데타 실제인 김충필씨의 친척이었던 광주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원로 법조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가. 고소사건을 검사사가 아닌 수사과장이 내사종결처리한 사항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당시 실제의 친척과 관련된 사안이었던 만큼 차장검사와 검사장이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검사장의 압력 때문에 취소했지만 이후 문제가 됐던 수사과장이 국가재건회의에 그를 무고했다.

‘5·18’이 법적으로 명예회복된 지금

피해자·시민들 당시 정신 잊어선 안돼

국가재건회의 법과분과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고 영장청구가 정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는 여전히 검찰 고위층의 ‘말썽거리’였다. 이 외에 당시 군인 출신 시장이나 중앙정보부 등 권력층의 민원성 또는 권력남용형태의 고소사건이나 구속 수사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부도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결국 첫 부임지에서 광주지검으로 전보된 뒤, 6개월 만에 또다시 제주지검으로 발령이 나자 곧바로 사표를 낸 그는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 변호사는 “군부 시절이었던 60년대에도 소신껏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많았고, 장관이나 검사장이 하지 말라는 기소장을 접수하는 평검사들도 많았다”면서 “요즘 검사들은 소신이 없어 뒷사람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검사들의 요즘 세태를 안타까워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룡발자국 화석지 발견 백악기 집단서식지 추정

여수항에서 남서쪽으로 27km, 1시간 남짓 배를 타면 화정면 남도리 사도에 이른 다. 바다 한 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다고 ‘사호도(沙湖島)’로 불렸다. 난중일기에는 ‘개이도(介伊島)’로 기록돼 있다. 추도, 나골, 연목, 간대섬(中島), 시루섬(巖島), 진대섬(長沙島)이 사도를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놓여있다.

일곱 섬을 합한 면적은 38ha이다. 사도와 추도만 유인도이고, 다른 섬은 무인도다. 사도에는 21가구 46명, 추도에 2가구 3명이 거주한다.

돌미역, 톳을 채취하고, 12집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성주 배씨가 처음 정착했고, 현재는 인동 장씨가 많다. 지난 1954년 개교한 여산초등학교 사도 분교는 1996년 폐교된 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수련장으로 변했다.

사도가 유명해진 것은 해마다 8~10회에 걸쳐 진도처럼 물 갈라짐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을 비롯해 썰물 때 추도와 사도 간 약 700m가 6~7m 폭으로 ‘신비의 바닷길(모세의 기적)’이 난다.

10년 전 장제섭 읍이 그린 지도에는 ‘횃등’이라 기록돼 있다. 기암괴석과 모래가 어우러진 섬으로도 소문났다.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퇴적암, 해수욕장은 주말과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사도 선착장에 설치된 공룡 조형물.

이순신 장군의 눈에 띄어 거북선을 구상하게 했다는 거북바위를 비롯해 얼굴바위, 용미암, 명석바위, 장군바위, 뒷샘이 있다. 중도와 시루섬 사이 양면해수욕장은 조개더미가 부서져 생긴 ‘썩모래밭’이다. 지형학 용어로 육계사주(陸繫沙洲·Tom-bolo)다.

지난 1987년 시루섬 응회암 벼랑에서 흑백나무류 목재화석인 ‘구화목’이 발견되었다. 지난 2002년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는 사도 일대에서 총 3천800여 점의 공룡발자국화석을 찾아냈다. 특히 조각류 공룡의 보행열이 84m나 발견되기도 했다.

추도 세일층은 7천700만년 전, 사도 화석층은 6천500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기 당시 대규모 공룡집단 서식지였을 가능성이 크며, 공룡 최후기 시대에 해당함으로써 공룡생태와 멸종에 관련한 자료가 축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공룡발자국 화석지와 퇴적층은 천연기념물 434호로 지정되었다. 최근 해남, 화순, 보성, 경남 고성 지역 조사 성과물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도 열렸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기록된 역사도 있지만, 땅 속과 바위에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다. 선사유적 발굴과 자연사 비밀을 캐내는 작업은 전라도의 진가를 재조명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중생대 백악기 공룡화석을 발굴한 것은 큰 성과로 기록됐다.

호수였던 전라도 남해와 하늘을 배회하던 공룡을 그려본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원장)

전세계가 격찬한 불멸의 감동 신화!

비바리, 김연경, 남정우, 송영민, 강성태, 주길재, 박성민, 박유리, 이상, 최고위, 캐스팅



2007. 3. 9 (금) - 11 (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20-0543, 1588-0755